

“이대론 안된다” 위기감...전남 관광서비스 대전환 주목

김영록지사 대담민담화문

불친절·잔반 재사용·위생 문제 사과
‘품격 있는 관광전남’ 3대 전략 발표
음식점·숙박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약속
“도민·관광업계 함께 나서야” 호소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최근 잇따른 음식점 불친절,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문제 등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과하고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담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대담화문을 통해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년 전남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서비스 바꾸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담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보인다”며 “이제는 전남 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민과 관광업계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

이 되는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 진심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별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대폭 강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인증 업소 중심 ‘특화구역’ 지정, ‘안심 먹거리 존’ 조성 ▲2만9천 개 음식점에 종사자용 친절 앞치마 보급 ▲고령

자영업자 대상 위생 컨설팅 ▲잔반 재사용 철저 금지 ▲‘우수 숙박 청결 인증’ 900곳→1천곳 확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친절 문화 정착과 합리적 가격 체계 확립을 위해 ▲훈방 가능 음식점 확대, 1인용 식탁 보급 (1천개) ▲요금 사전 신고제 및 착한 가격업소 확대 (기존 548곳에서 500곳 추가)와 철저한 정비 ▲불친절 민원 업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특별 위생 점검 적발 시 페널티 부여, 중대한 위반 시 지원 중단 등에 나선다.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여 개 관광안내소 ‘전남관광안내센터’ 확대 운영 ▲‘JN TOUR’ 앱 불편 접수 시스템 도입, ‘신고접수 대표전화’ 등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의 노력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친절, 합리적인 가격 실천을, 도민에게는 관광객에 대한 따뜻한 응대와 불친절·바가지요금 업소 발견 시 즉각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8월 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LPG A BMW 골프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더 청결하고, 친절하며, 신뢰받는 품격있는 관광 전남’을 실현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풍전등화’ 전남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현실화

LG화학 나주공장 생산설비 총남 이전
‘수익성 저하’ 생산 효율 개선 자구책
여천NCC 대주주 한화·DL ‘책임 공방’

여천NCC 3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LG화학 나주공장 일부 생산라인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석유화학업계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저가 제품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향후 지

역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내 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나주공장 내 연간 생산 2천 규모의 스타이렌 아크릴레이트 라텍스(SAL) 생산설비를 총남 대산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은 수익성 저하로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SAL은 산업용 및 건축용 접착제와 코팅제의 핵심 원료다.

기존 LG화학 나주공장은 알코올 등 5개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년까지 총 3개 생산라인을 중단해 ‘가소제’와 ‘촉매’ 생산라인만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2개 라인도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글로벌 경제 불황이 겹치면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석유화학 업종 부진 뿐만 아니라, 나주공장이 내륙에 위치해 원자재·완제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높아 가격 경쟁력 확보가 힘든

점도 이전 배경으로 꼽힌다.

LG화학은 해당 공장 직원들을 여수, 대산 등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 공장 일부 라인 이전에 따라 운병태 나주시장은 지난달 초 LG본사를 방문해 나주공장 신사업 유치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여천NCC는 공동 대주주인 한화와 DL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해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놓고 한화와 DL측이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남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빠르게 발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韓美 정상회담 25일 열린다

李대통령, 24-26일 취임 후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된다.

▶관련기사 13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50일 만이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균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 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 인터뷰-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 5편
-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지리산백사골 14편
- KIA 코치진 개편...불편 불만 해소 될까 16편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캠페인

해보려는 그 순간이 이미 센스니까

냉방할 때는 문을 꼭 닫아!!
26℃ 여름철 적정온도 26도 준수하기!!
안 쓰는 게품 플러그 뽑기!!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니깐!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